

조별독서활동지

(5)조

도서명	구성원	일시
1984	박상희, 이은지, 조예림 민지수, 양세연, 최형균	2019. 04. 02
<내용정리> <p>이 책은 비판정신으로 무장한 풍자소설의 대가인 조지 오웰이 1948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작품의 배경은 1984년인데 전쟁 이후 상호 파괴적인 시대를 가정하고 있다. 세계는 3대 강국과 주변 국가들로 분리되는데 3대 강국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서로의 통치권을 유지하며 견제한다. 그 중 주요 배경인 오세아니아라는 국가는 전체주의로 국가가 개인을 심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국가인데, 주인공 윈스턴은 이런 전체주의에 환멸을 느끼는 인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줄리아 역시 전체주의에 환멸을 느끼는 인물로써 서로 밀회를 가지다가 당의 내부당원인 채링턴의 함정에 빠져 당에 잡혀가게 된다. 그들은 온갖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서로를 배신하게 되고, 당의 사상에 굴복하게 되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p>		
<소감> <p>박상희 -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당의 통치방법이다. 집단에 대한 불만을 분산시키고 없애기 위해 ‘증오’를 이용하는 것, 공공의 적을 만들어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방법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데 과연 나는 이런 집단의 ‘증오’의 전략에 빠지지 않았는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p>		
<주제 및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통제보다 더 무서운 자기 스스로의 통제와 상호감시 · 국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역사 왜곡 및 삭제 · 마침내 당의 사상에 굴복한 한 개인의 선택 		
<토론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윈스턴 본인이 살기 위한 줄리아를 배신한 선택 · 현재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삶과 자유가 쉽게 노출되고 감시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보통신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전체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